

입춘의 기운 담아... 올림픽 유치 결의

도, 2036 올림픽 유치 염원
슬로건 쓰기·입춘첩 게첩
전북자치도 출범 2년 맞아
전북 현안 적극 실현 다짐

전북특별자치도가 입춘을 맞아 도민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기반을 한 핵심 사업 실현 및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에 의지를 다졌다.

전북자치도는 3일 도청에서 세계서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원로 작가들과 함께 '입춘맞이 2036 올림픽 유치 염원 슬로건 쓰기 및 입춘첩 게첩' 행사를 가졌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세계서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원로 작가들과 함께 붓을 들어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세계를 향한 전북의 비상'이라는 글귀를 직접 작성하며 전북의 글로벌 도약을 향한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입춘 덕담을 나누며 도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요 현안 실현을 다짐했다.

입춘(立春)은 24절기 중의 첫 번째 절기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날이다. 예로부터 조상들은 대문이나 서당에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과 같은 입춘첩(立春帖)을 써 붙이며 한 해의 행운과 풍요를 기원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입춘의 좋은 기운을 받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이루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번 행사를



3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입춘을 맞아 도민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고 2036 하계 올림픽 전북유치 염원을 위한 슬로건 쓰기 행사에 김관영 도지사와 윤점용 서예비엔날레 집행위원장등 참석자들이 전북의 비상을 기원하며 글을 썼다.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최병관 행정부지사, 김중훈 경제부지사, 이정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도청 관계자와 세계서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 원로 작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김 지사가 직접 작성한 올림픽 유치 슬로건과 함께 '입춘대길 건양다경'이 적힌 입춘첩을 나누며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윤점용 집행위원장이 작성한 '2036 하계올림픽' 문구는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입춘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날

이다. 오늘 행사에서 올림픽 유치를 향한 강한 의지를 담아 슬로건을 작성했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년 차를 맞아 도전경성(挑戰驚城)의 자세로 전북자치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초지일관(初志一貫) 도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글서예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과 관련된 논의도 이뤄졌다. 세계서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한글서예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김 지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추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에 적극 공감하며 서예문화의

세계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예산 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기존 사례를 참고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서예 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제15회 세계서예비엔날레가 개최되며, 2027년까지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전북이 대한민국 서예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서예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장애인근로자 임금 차액에 대한 보전

민주 이원택 의원,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은 지난 3일,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훈련 중인 장애인의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여, 장애인 근로자들이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최저임금효력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305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인 483만원의 63.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2017년 동일 기준 수치가 66.9%였던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 가구의 소득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하반기 기준 등록장애인 259만명 중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은 35.4%(인 88만명)로, 이 중 28.2%에 해당하는 17만8,285명의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원택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도 동등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며, "국가가 장애인 근로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책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소득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누구나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원택 의원을 포함한 김상욱·전진숙·이병진·송옥주·서삼석·이성운·정정래·이수진·이춘석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한병도 의원, NGO 모니터단 선정 국감 우수의원상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이 법소스비자연맹 주관 NGO 모니터단 '2024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한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부적절성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등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균형발전과 국민 안전에 관련된 정책 대안을 두루 제시하며 내일 있는 감사를 이끌었다.



특히 그는 △소방공무원 부실 급식 실태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선정 공정성 담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 △지방자치단체별 공공요금 편차 △공무원 KTX마일리지 사적 사용 △전국 배수펌프장 노후화 개선 필요성 등을 짚으며 민생 개선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병도 의원은 "초유의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엄청난 시국에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라고 소회를 밝히며,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비명계, 이재명 일극체제 비판 잇따라 “지난 대선 패배 성찰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명계(비이재명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3일 "이 대표가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성찰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족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비로소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성찰해야 답이 보인다"며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보이는 난

“비전 제시 여부가 정권교체 성패 가를 관건”

점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의 차이가 결과에 그대로 반영될거라 맹신하거나 혹은 결과의 차이가 커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인식"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대선을 돌아본다"며 "상대는 30대 젊은 대표를 세우고 대선 후보를 밖에서 영입하고 막판 단일화까지 하면서 안간힘을 다했다. 우리도 그렇게 간절했나"라고 물었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대표를 연립하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후보는 모두 총청에서

압승을 했다. 왜 이재명 후보는 총청에서 졌을까"라고 말했다.

또 "우리가 절실하게 통합과 연대에 적극적이었나. 행정수도 이전과 같은 공약은 있었나"라며 "민주당은 공식적인 대선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민주당 의원 모임인 '초일회' 소속의 양기대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민주당을 어떻게 통합하고, 국정 의 대안 세력으로서 어떤 비전을 제

시할지가 정권교체의 성패를 가를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양 전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민주당 정권교체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비명계 대선 주자들은 이 대표의 독선적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다양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하는 역동적인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대정신이자 탄핵의 완성인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역동적이고 민주적인 당내 후보 경쟁이 필요한 데 절박함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군산시의회 임시회 18일 개최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오는 18일 제27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시의회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72회 임시회를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군산시 교항사당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부의안건을 상정기로 했으며, 이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11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상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예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군산시 데이터거버넌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경식 의원),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동완 의원), △군산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서은식 의원), △군산시 안관리 및 안환자 지원 조례안(한경봉 의원) 등이다.

또한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는 물론 현안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